

#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4>]한라산서 1905년 인공재배 도입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6.09. 00:01:00

##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13>

### 제주특산물 표고버섯 재배사(상)



표고가 인공에 의해 규모화된 형태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을 효시로 보고 있다.

제주도지(誌, 1982)에는 '제주도의 표고생산은 1905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재배기술은 원시적이었으나 광복후 재배기술의 개발과 산림조합연합회에서 종묘의 체계적인 생산공급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미개의 보고, 제주도'(1924)에는 일제 이후 표고 재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1905년 당시 제주에 와 있던 일본인

후지타, 모치즈키, 가미야 등이 인공재배에 의한 표고업을 유망시하고 재배에 뛰어들었다. 이 때 이들은 동영사(東瀛社)를 조직하고 이듬해인 1906년 11월에는 표고재배 전문가였던 다나카 등을 초빙, 시험을 거쳐 재배에 성공을 거둔다.

그후 1909년 9월에는 당국의 인가를 거쳐 사업을 더욱 확장했으며 가토, 마수다 등이 연이어 인가를 얻어 표고사업에 조직적으로 착수했다. 1919년에는 조선총독부가 한라산 표고버섯을 특산물로 편입함에 따라 더욱 장려됐다. 당시 표고업에 뛰어든 일본인만 10여명에 이르렀으며, 석주명은 "여러명의 한국인도 흥내내는 정도로 허가되었다"고 그의 저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생산된 표고는 포장해 서귀포에서 선박편으로 오사카에 이송됐으며 다시 오사카회사에서 위탁판매에 붙여져 중국으로까지 수출됐다.

표고버섯은 해외수출의 호조와 일본에서의 수요 등으로 가격은 계속 뛰었으나 난벌의 결과, 표고자목이 모자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일제는 '제주의 수목을 절약적 벌목으로 이 사업을 계속토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고 꼬집기까지 했다.

실제로 1924년 즈음만 해도 당시 표고버섯 재배구역은 (한라산)동남부의 화전 위쪽으로서 그 면적은 5천여정보(1천5백만평)에 이르렀다.

당시 일제는 제주의 보고(寶庫)에 대해 8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가운데 '웅대한 대삼림지를 소유하고 있어 임업경영에 절호의 토지' '한라산의 중턱에는 광대한 삼림이 있어 표고재배업에

가장 유망하다'고 예측했다. 표고산업의 가능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표고업에 대해 일제가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표고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일본인 위주의 표고재배업자와 제주도민들간 분쟁도 빚어졌다.

일제 하 제주도의 초대 도사(島司, 지금의 도지사)를 지낸 이마무라 도모(1915~1919년 재임)는 1928년 8월 총독부의 한 기관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겼다.

'방목중인 소가 왕왕 그 위쪽에 있는 표고업자가 경영하는 산림지대 안에 침입해 모처럼 배양해 놓은 표고를 닥치는 대로 훔아먹는다. 표고업자가 이를 억류해서 제주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 표고업자와 제주인들간에 종종 싸움이 일어나 제주사람들이 경찰신세를 졌다고 한다.' 표고재배와 관련한 분쟁에서 제주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표고생산 1960~70년대 한라산 전역서 호황

제주에서 표고가 본격적으로 인공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제주에서 표고 생산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한라산에서 채취해 소비되고 반출돼 왔다는 기록들이 있다.

'한라산 삼림대의 수종은 표고자목인 자작나무, 졸참나무의 번식으로 보충되고, 바람에 꺾이고 난벌되는 수목에 자연발생하는 표고는 극히 우수해서 본래 원주민들은 이것을 채취해 햇볕에 말려 시장에 반출하곤 했다.'(미개의 보고 제주도, 1924, 전라남도 제주도청)

'나비박사' 석주명도 20세기 전반의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을 소개한 '제주도수필'(1949년 집필)에서 '한라산 삼림대 수목에 자연발생한 표고버섯이 극히 우수해 지방인들은 이를 채취 건조해 시장에 반출함이 많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제주산 표고는 광복후 생산량이 크게 불어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라산 전역에서 33명의 재배자가 호황을 누렸다. 생산량만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 1936년 2,800kg, 1937년 2,600kg, 1938년 3,500kg에 비하여 1968년 71,380kg, 1973년에는 100,680kg까지 늘어났다.

생산된 표고는 주로 동남아, 일본 등지로 수출됐으며 생산량이 많았던 해인 1973년의 표고 수출액은 1,127,935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6년에 국립공원내 표고재배 중단조치로 11곳의 표고재배장이 철수하면서 이듬해인 1977년에는 생산량이 다시 61,598kg으로 줄었다. 1993년도에는 얼마되지 않는 연간 표고자목 매각대금의 재정수입을 위해 한라산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으로 인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내에서 벌채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특산품으로 호황을 누렸던 표고버섯 재배는 더 이상 도의 특화산업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표고원목은 600고지 이하의 사유림과 일부 국유림에서의 벌채로 의존하게 됐고 근래에 들어선 표고원목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표고버섯 자목의 절반 이상이 수입중국산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4년 전라남도제주도청이 펴낸 '미개의 보고, 제주도'에 소개된 제주도 지도. 이 지도에 당시 한라산 일대 표고버섯 재배장(원 표시)이 표시돼 있다. 이 책에는 당시 표고버섯 재배구역이 (한라산)동남부의 화전 위쪽으로서 그 면적은 5천여정보(1천5백만평)에 이르렀다고 소개하고 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